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제 39 - 5 호

2022년 1월 30일

- 설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 건강과 화목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설연휴 기간은 30일부터 2월 3일(목)까지입니다.
- 이번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4일(금) 오후 3시. 공동생활위원회  
4일(금) 오후 8시. 생활공동체 모임  
5일(토) 오후 2시. 멋쟁이학교 신입생 부모 모임  
5일(토) 오후 4시. 공동체운영위원회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중국에서 온 편지

-우리는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은 정말 믿어지지 않게 많이 변했습니다. 2019년 여름 이후 저희의 삶과 사역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6세, 키 183cm의 멋쟁이로,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교육환경이 가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전면 폐쇄, 국제학교 불허, 기독교대안학교 폐쇄, 세뇌 교육 강화 등) 우리 애들은 사랑방 덕분에 이런 와중에서도 바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 인터넷 강의로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을 시도하고 있어 기독교 대안학교 폐쇄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에 돌아온 후 장인, 장모님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모든 예식을 주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섭섭하지만 시간 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교회와 가족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사의 시간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교회 사역으로 분주합니다. 코로나보다 정부가 코로나를 절호의 계기로 삼아 전대미문의 철통 통제를 시도하여 교회 역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 흐름을 역주행하여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의 "오세아니아"를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란 말은 우리에게 미래의 공포가 아닌 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인터넷 종교 관리 조례"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 앞으로 인터넷에서 모든 종교 관련 내용(예배 생중계, 동영상, 홍보 등 일체)이 금지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는 이미 위젯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년 교회 교인도, 헌금도 늘었고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예배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베이징에는 원래 많이 있던 소위 "큰 교회"들은 다 흩어졌  
**선교와 섬김**

습니다. 이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들은 열심히 작은 예배소를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날 지나면 사역이 훨씬 더 바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세계는 별개의 세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의로운 분노를 품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들, 중국 땅에서 매일매일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올해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게임이 올해로써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경제 성장 신화(神話)가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2021년 중국 인구 증가는 공식적으로 겨우 48만명(그것도 조작된 숫자일 가능성 큼), 2022년 중국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갑니다. 젊은이들이 갈수록 감소하고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중국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올해 11월 공산당 20차 대표대회가 열리는데 시진핑이 그 때에 등소평의 '최고지도자 10년 집권 전통'을 깨고 3차 연임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그는 빨간 황제가 되어 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면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 크다고 여겨 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이후 하나님의 역사(歷史=役事)는 매일 매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2년 이후 중국 이외의 세계는 (한국 역시) 차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Zero Cleaning" 정책으로 계속해서 고립된 고도(孤島)로 세상 사람들의 경계(警戒), 증오(憎惡), 때로는 연민(憐憫)과 동정(同情)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중국을 위하여 중국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주간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14:1-18

제목 : 솔로몬의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8 516 433 384

1-5 집을 세우는 사람,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

해석: 하나님을 아는 것(신앙)은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더 나아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진실되게 행동하게 한다.

적용: 신앙(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을 누리자.

6-9 지혜를 얻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해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지 않게 한다.

적용: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신앙을 소중히 생각하자.

10-14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해석: 사람의 이해(지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

적용: 자기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15-18 지식으로 면류관을 받는 슬기로운 사람

해석: 지혜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악을 피하고, 좋은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적용: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잊지 말자.

## 공동체

.....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기서 형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바울은 그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얻은 형제”라고 부른다. (빌1:14)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될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셨던 것만이 나를 다른 사람의 형제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그에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공동체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형제는 형제애를 갈망하며 내게 마주 서 있는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죄에서 풀려나 믿음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 즉 그의 깊은 내면성과 경건성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보는 것만이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규정한다.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속에서만 존립한다. 우리의 공동체는 처음에만 그렇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그 무엇이 추가되는 형태를 갖지 않는다.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다른 사람과의 사귀를 갖게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귀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귀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더 뚜렷하게, 그만큼 더 순수하게 예수그리스도와 그분의 활동만이 유일하게 우리 사이에서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실제로 가질(haben)수 있고, 또한 영원히 우리를 가질 수 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5 : 3-10  
31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39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창세기 32 : 9 - 12  
293 설교자  
사랑방  
“ 고향으로 가는 길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김영화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생각하며 오고가는 설 명절입니다.  
육체의 고향, 믿음의 고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고향으로 가는 길

야곱의 기도.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피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외삼촌을 속이고 두 아내와 열한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 야곱은 몹시 두렵고 불안했고, 압복강가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11>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왜, 야곱은 고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2>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인간적인 데에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야곱은 사랑과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또 임종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세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등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8> 현대인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등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안정하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고향으로 가십시오. 육체적인 삶의 고향, 배움의 고향, 믿음의 고향을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어려우면, 끊어진 사람들 간의 연결,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관계로 대신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 얼굴 빨개지는 아이 독후감

작성일 : 2022년 1월 8일

우연히 서점에서 추천받아 가져와보니 평소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들 중 한 분께서 쓰신 책이었기에 매우 기뻐다. 이 책은, 과연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과 감정들을 글로만 표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림에서 주는 안정과 따뜻함이 있다. 꼬마 니콜라로 유명한 장자크 상페의 20년 전 작품이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매순간에 이유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카이유 마르슬랭과 역시 매순간에 이유없이 재채기를 하는 르네가 이웃으로 만나 절친이 되는 내용이다. 자신의 원인불명의 병에 항상 혼자 지내던 마르슬랭은 병명이 같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르네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행복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르네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고 르네는 자신의 주소를 적어 마르슬랭의 부모에게 남겨두었지만 너무 바빴던 마르슬랭의 부모님은 종이를 찾지 못한다. 그 후 오랜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마르슬랭과 르네는 시내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다시, 하지만 더 깊은 우정을 나눈다.

마르슬랭과 르네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 둘을 특이하고 불행하게 대한다. 위축된 마르슬랭과 르네는 더욱 혼자있는 것에 안정을 느낀다. 그러나 둘이 만나자 변화가 생긴다. 첫 번째는 장소이다. 마르슬랭은 해변가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얼굴이 빨개지기에 바캉스철을 매우 그리워하고 겨울을 싫어한다. 르네는 바이올린에 재능을 가졌지만 재채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없어지고 그저 강가를 산책하는 것이 위안이었다. 하지만 둘이 만나서 놀 때는 어디에서든 활발하게 즐기면서 논다. 둘은 학예회에서 개인공연도 하고 어울려서 놀게된다. 두 번째는 인식이다. 자신들의 알 수 없는 그 병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밝아지고 긍정적이게 된다.

이 둘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란 게 얼마나 귀한건지, 또 어떤건지 잘 알려지는 부분은 르네가 이사를 간 후 라고 생각한다. 서로 연락은 할 수 없지만 마르슬랭은 르네를 매우 그리워한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어울려 다녔지만 항상 르네얘기를 했고 그리워했다. 책에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하였지만, 전혀 놀거나 말하지 않고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전혀 지루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가 나온다. 어쩌면 르네보다도 웃기고 의리심도 강하고 끼가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도 르네를 그리워했던 이유는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거웠기 때문이다. 새로 사귄 친구들처럼 이것저것 하며 놀거나 말하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들은 어색한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장 힘든 것이 침묵이라고 말한다. 침묵이라는 것 자체가 더 어색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나 친하거나 편안한 사람과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다. 지루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건 마르슬랭에게는 르네가 유일 했던 것이다.

마르슬랭은 어른이 되고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가며 바쁘게 지낸다. 그가 어렸을 적, 종이쪽지 하나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빴던 그의 부모님과 어른들처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단순히 바쁘고 정신없는 어른들의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누구나 그런 추억과 그리움을 품고 혹은 잊고 지내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둘이 우연히 만나기 전에는 비가 내려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버스에서 갑작스럽게 만나자마자 해가 뜬다. 그 옆에 작가는 '무척 노력해 보았지만, 두 친구가 느꼈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란 내겐 역부족이다' 라고 써있다. 그림으로 작가가 표현한 방법이 어떤 글보다 더 와닿은 듯 하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장면은 커서 사냥을 하는 부분이다. 둘은 어릴 적, 잔디밭에서 숨바꼭질을 한다. 한 명은 얼굴이 빨개져 바로 찾을 수 있고 한명은 계속 재채기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둘은 개의치 않고 숨바꼭질을 한다. 어른이 되어서는 숲에서 사냥을 즐겨한다. 둘은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에게도 해롭지도 않기 때문에 함께 사냥을 한다. 다른사람이라면 불치병 때문에 사냥 따위는 시도도 안 할 것이지만 둘은 오히려 병이 있기에 사냥을 즐겨 한다. 마음가짐이 참 정겹지 않은가?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병. 이유라도 알고 싶었던 둘은 함께 지내며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해결방법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아마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약이 아니었을까. 혹은 그 우정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얻기 전 하늘이 내린 작은 선물이 아니었을까.

멋쟁이학교 고은유

## 방학 숙제

2022년 1월 말이다. 새해의 한 달이 후딱 지나갔다.

언젠가부터 나는 새해에 의미를 두고 새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고, 새해가 되기 전인 12월 중반쯤 미뤄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각하고 방학 때 이걸 해야겠구나, 하며 어림잡아보는 정도만 한다. 이 일들이 내 나름의 겨울방학 숙제인 셈이다.

이미 꽤 지나온 이번 방학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니 그래도 제법 많은 일들이 떠오른다.

먼저, 방학 시작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대강절 연속 기도 시간은 성탄트리의 전구처럼 반짝거리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오랜만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드리고 마음 담아 카드도 쓰고, 교육관에 서 있는 트리에 내 기도 쪽지를 올리고, 대신 누군가의 기도 쪽지를 고이 간직해서 나왔었다.

그 다음은 해가 바뀌는 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한 주일 다녀온 일이다. 바쁘게 잠시 한두 번 다녀온 적을 빼고 순수하게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간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내려가기 전에는 가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들도 많았지만 막상 가서는 부모님과 삼시 세끼 밥 먹고 부산 가족들 만나며 그저 일상들을 함께 하고 왔다.

그 후에는 메타버스를 도입한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가 있었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길고 중요한 회의들도 있었고, 여러 날을 밤낮으로 매달려서 졸업앨범 편집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6학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 시국이라 변수가 많았지만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 일들 끝에 오랜만에 별일 없는 이번 주가 되고 보니 지금이 찼 방학인가 싶고, 방학에 하리라 미뤄뒀던 일들 중에 아직 못한 일은 뭔가 생각도 해보게 된다.

며칠 전 우리 반 친구가 망했다며 방학하고 아직 일기를 한 편도 못 썼다고 문자를 보냈길래 망한 거 아니라고 지금부터 좀 더 자주 일기를 쓰면 된다고 답했었는데, 나도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기억도 하지 못한 방학 숙제는 뭐가 있나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방학으로 미뤄둔 일들 중에는 '좀 쉬기'도 있으니까 이 숙제부터 좀 더 확실하게 해보고 싶긴 하다. ㅎㅎ

-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빌립보서 3장 8~14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국가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치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민들레 학교 교사초빙, 학생 모집과 민들레 대학 운영을 위해서
-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 공간디자인 및 작업
- 선교사, 목회자 지원 사역을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기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만3천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특히 설 연휴동안 공동체 지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1월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같은 마음 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 중에는 교육관 2층, 멧쟁이 남학생들이 쓰는 5방 화장실 수도관 교체로 며칠 동안 나송주집사님과 멧쟁이선생님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왕래하는 식구들이 있어 일정을 함께 공유하고, 연휴 기간 동안 공동체를 지킬 당직을 자원해주셔서 정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